

## 국문 요약

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생태도시는 도시 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도시 발전과정에서 녹색도시, 환경도시, 생태도시, 생태공학도시, 환경친화적 도시, 지속가능한 도시, 에코시티 또는 에코폴리스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로 발전되어 왔다. 아울러 도시의 발전과정에서 생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의 내적인 융합을 목표로 하는 생태문화도시 형성을 대안적인 비전으로 대두되고 있다.

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태문화적 관점에서 생태문화도시 개념을 정립하고, 지속가능한 도시를 평가할 수 있는 세부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.

먼저, 생태문화도시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도시 패러다임 변화와 생태문화도시와 관련된 생태도시, 문화도시의 개념을 분석하고 법률 및 제도, 도시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생태문화도시 잠재요소를 도출하였다. 잠재요소를 바탕으로 브레인스토밍, FGI(Focus Group Interview) 전문가 설문 등의 방법을 통해 융복합적 시각에서 생태문화도시를 정의하고 구성요소와 그 개념들을 정립하였다.

생태문화도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의 문화적 전환을 발상으로 생태학적 적응에 관한 분야라는 점에서 문화적, 전체론적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다. 생태학의 문화적 전환이란 생태자원과 사회전반의 생활양식 및 한 사회 집단의 정신적, 물리적, 지적 특징과의 연계 및 융복합적 조화를 말한다. 융복합적 조화는 생태요소와 문화적 현상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고 이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도시의 원동력이 된다.